【1】 第18116號 【1955·2·21第3種郵便物認可】 【1964·1·1登錄番號가—2號】 The Dong-A Ilbo 【1920年4月1日創刊】 1980年8月20日 水曜日 ② 〔日刊〕

東亞日報

會長 金相万
發行人 編輯人 李東旭
印刷人 金星七

發行所
서울特別市鍾路區世宗路139
(郵便番號110)
東亞日報社

交換代表 (73)5221 (73)5231
編輯局 (73)6103 (75)1741
廣告問議 廣告接受 (73)6107 (73)6108
購讀申請 配達事故 (73)6106 (73)6460

購讀料 月定 1,500원 1部 80원

本報는 新聞倫理綱領및 그實踐要綱을 遵守한다。

높은 이자
중앙투자금융(주)
☎778-2121~8

重工業 분야별 一元化

國保委 過投資損失막기위해 調整

大宇 發電·重裝備맡아

現代 乘用車생산 專業

起亞産業은 5t이하 트럭만 生産

中小企業補完대책은 한달내발표

國家保衛非常對策委員會 商工資源분과위원회(위원장 琴震鎬)는 20일 중복過投資로 不實化되고있는 重工業분야에 대한 획기적인 투자조정을 단행, 發電설비와 重裝備는 大宇그룹으로 통합 一元化하고 승용차는 既存3社 시설을 통폐합, 現代그룹으로 각각 一元化했다。〈2面에 관련기사〉

이에따라 現代洋行의 軍浦중장비공장을 포함한 昌原종합기계공장과 大宇의 玉浦종합기계공단은 1개法人으로 통합합병, 大宇그룹이 책임경영하게됐으며 자동차는 現代와 새한이 역시 1개법인으로 통합합병, 現代측이 승용차생산에만 專業, 경쟁력을 강화키로했다。起亞産業은 브리사와 피아트 푸조등 현행 승용차생산에서 손을떼는 대신 타이탄 파 복서등 5t이하의 트럭생산에만 專業키로됐으며 새한의 엘프 現代의 바이스등 起亞와의 경쟁車種은 생산이 금지된다。

現代洋行의 鄭仁永씨는 昌原사업에 대한 투자분 2백억원만 持分으로 인정받아 1개株主로서의 계속참여문제를 大宇측과 협의케됐다。

國保委는 현재의 국내시장규모나 기업의 투자능력에 비추어 중화학부문의 중복過投資를 방치해둘경우 企業은 물론 금융기관까지 모두 不實化시킬 것으로 우려된다고 지적, 과열투자의 핵심부문인 발전설비와 자동차 건설중장비부문을 우선 1차로 조정했다고 밝히고 重電機 디젤엔진 전子交換시스템등 그밖의 과잉투자사업은 業界가 자발적으로 기업합병 또는 기업간 協業을 통해 분야별로 전문화가 이루어지도록 기대하되 필요한경우 정부가 介入조정하겠다고 밝혔다。

國保委는 발전설비업체중 三星重工業은 산업용보일러만 생산토록하고 起亞産業과 관련 중소기업에 대한 세부 補完대책은 앞으로 한달안에 마련, 발표키로했으며 발전설비와 자동차분야의 기본육성계획도 수립, 곧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國保委는 발전설비의 경우 새로 설립되는 통합법인은 主器機만 생산하고 기타 補助器機는 여러 전문생산업체가 나누어 생산토록하며 특정大企業그룹이 국가기간산업을 독점하는데따른 공급상의 횡포나 연구개발투자의 소홀등의 폐해는 강력한 공정거래법및 소비자보호법의 제정과 정부의 각종 행정규제를 통해 단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國保委는 이미 제휴중인 GM과 「웨스팅하우스」등 외國投資先과 기술提携先과는 현재 협의가 진행중이며 협의진행과정에서 이들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 참여에의 문호를 계속 개방하겠다고 밝혔다。

57일만에 다시 만나 입씨름만 거듭하다 끝난 제10차 남북실무접촉。왼쪽 北측의 玄峻極수석대표 자리가 비어있다。〈黃鍾建기자〉

南北實務접촉 결렬위기

板門店서 10차접촉 北側、韓國內문제트집…延期주장

9월26일 다시接觸

【板門店=李洛淵기자】南北총리회담의 절차준비를위한 제10차 南北韓실무대표접촉이 20일 오전10시 板門店 북쪽지역인 板門閣에서 열렸으나 北韓측이 최근 韓國內문제를 트집잡아 10차접촉자체를 연기하자고 주장, 南北총리회담을 위한 실무접촉은 결렬의 위기에 직면했다。

이날 접촉은 의제토의에 들어가지도 못한채 입씨름만 하다가 1시간반만에 끝났으며 다음접촉은 오는 9월26일 오전10시 「자유의집」에서 갖기로 했다。

이날 접촉에서 北韓측의 林春吉은 『南朝鮮에는 우리를 반대하는 反共소동이 현재 격화되고있다』고 주장하고 『총리접촉을 할 여지도없는 상황에서 총리접촉을위한 실무접촉을 어떻게 할수있느냐』고 말했다。

林은 『따라서 지금과 같은 실정에서는 총리회담을 위한 실무접촉이 무의미하다』고 강조하고 『사태가 정상화될때까지 이날 하기로 한 10차접촉을 9월30일로 연기하자』고 제의했다。

林은 이와같은 강변을 늘어놓은뒤 『오늘 南北대표가 만난것은 실무접촉이 아니라 다만 자신들은 10차접촉을 연기시키기위해 이자리에 나왔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서울측 李東馥대표는 『귀측의 일방적 발언은 인정할수 없다』고 전제, 『이같은 北측의 태도는 대화당사자에 대한 예의에 어긋나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접촉은 예정대로 계속되어야 한다』고 반박했다。

李대표는 『南北총리회담은 어떤 특정 자연인간의 회담도 아니며 우리측에는 엄연히 총리가 있다』고 말하면서 과거 北韓측이 南北調節委당시 朴成哲이 대리참석했던 사례를 상기시켰다。

李대표는 또 『北측이 10차 접촉을 연기하자는것은 우리측의 사정이어서가아니고 北측에 사정이있어 의제토의에 대한 준비가 안된 상태에 있다면 오늘 10차 접촉은 예정대로 하고 11차 접촉을 우리측 자유의집에서 갖자』고 주장했다。

또 서울측 金永周수석대표도 대화당사자가 없다는 北측의 주장은 억지에 불과하며 총리회담은 北측의 성의여부에 따라 의제문제만 합의되면 언제라도 가질수 있다고 밝히고 北측의 성의있는 태도를 다시한번 촉구했다。金대표는 귀측이 우리얘기를 들을 권한도 부여받지 못하고 이자리에 나왔다고하니 오늘 접촉은 이것으로 끝내자고 말했다。

실무접촉이 끝난뒤 李東馥대표는 『北측은 최근 우리 국내정세와 관련, 항의하는 「표시」로 10차접촉을 유산시키려고 기도했다』고 밝히고 『그러나 오늘 접촉 석상에서 실질적인 협의가 있었고 다음 실무접촉의 일자와 장소에 대한 합의가 이뤄졌기때문에 엄연히 한차례의 접촉임에는 분명하며 北측의 의도는 빗나갔다』고 말했다。

이날 접촉에도 서울측에서는 金永周수석대표와 鄭宗植 李東馥대표가 참석했으나 平壤측에서는 玄峻極수석대표가 지난 9차접촉이래 두번째로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불참하고 林春吉 白俊赫대표만이 참석했다。

秋夕前 省墓團 교환케

赤十字 회담부터 열자 서울側 구두

서울측 金永周수석대표는 이날 공식접촉에 들어가기에 앞서 환담하는 가운데 離散가족문제를 해결키위해 중단된 南北적십자회담을 조속히 재개하는데 北韓측이 긍정적으로 호응해줄것을 촉구했다。

金수석대표는 『이산가족문제는 인도적견지에서 시급하고도 중요한 문제이니만큼 총리회담이 열리기전이라도 속히 적십자회담이 재개, 추석전에 상호 성묘단을 교환하는 것도 좋겠다』고 강조했다。

公訴사실 대부분是認

金大中·李文永 사실심리계속

金大中등 내란음모사건을 심리중인 육본계엄보통군법회의(재판장 文應植소장)는 20일 오전10시 육본대법정에서 金大中등 관련피고인 13명을 출석시킨가운데 4회공판을 열고 李文永피고인에 대한 사실심리를 계속했다。

李피고인은 이날 검찰관의 심문에서 『유신체제가 장기집권을 위한 체제라고 판단하고 文益煥 咸世雄 尹潽善씨등과 함께 민주주의 국민연합을 결성, 활동하게 됐다』고 진술했다。

李피고인은 『10·26사태가 발생하자 국민연합을 중심으로한 재야세력이 차기정권의 담당자가 돼야한다는 판단 아래 金大中이 차기 대통령으로 집권하도록 투쟁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키로 결의했다』는 공소사실을 시인했다。

李피고인은 79년3월 「국민연합」을 「민주주의와 민족통일을 위한 국민연합」으로 개편, 반정부활동을 계속하고 저술활동과 강연등을 통해 학생 종교인등의 반정부투쟁의식을 고취했다는 공소사실을 대부분 시인했다。

李피고인은 지난2월 金大中집에서 정책연구실장을 맡아달라는 부탁과함께 5백만원이 예금된 한일은행 신촌지점 온라인예금통장과 자신의 이름으로된 도장을 받아 보관해왔다고 진술했다。

李피고인은 이날 검찰관의 직접신문에대해 장황하게 공소사실을 설명하다가 재판부로부터 『간략하게 요점만 답변하는것이 사리판단에 도움이 된다』는 주의를 여러차례 받기도했다。

한편 19일 오후3회 공판개정직후 康大憲변호사는 『李信範피고인이 1회공판에서 구두요청한 재정신청을 철회한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관 직접신문에서 金大中피고인은 ▲지난 4월18일 동국대에서 「4·19혁명과 민족통일」이란 주제로 강연을 하면서 芮春浩 李龍熙 李必善등 국회의원을 동원하고 선전단 1만장을 각대학에 뿌렸으며 옥외확성기를 가설, 연설했고 ▲4월29일 忠南德山에서의 尹奉吉의사추모제에서 기자회견을통해 민주화촉진국민운동을 펴겠다고 말했으며 ▲5월1일 자택에서 한국민주제도연구소를 결성했다는등의 공소사실을 대부분 시인했다。

이어 文益煥피고인은 검찰관 직접신문에서 ▲지난 3월20일 高銀泰집에서 芮春浩 桂勳梯등과 만나 金大中구명운동을 하자고 제의, 大法院판사등에게 진정서를 냈고 ▲4월25일 李信範에게 『우선 학교가 대규모시위에 들어가야만 계엄이 해제되고 모든일이 순조롭게 풀려나갈것』이라고 말했다는등의 공소사실도 거의 시인했다。

3회공판은 文益煥피고인에 대한 검찰관의 직접신문을 마치고 오후5시15분 폐정했다。

國民投票 用紙내용

改憲案때사용하게 「찬성」「반대」로 바꿔

국무회의는 19일 국민투표법시행령을 고쳐 국가의 중요정책에 대한 투표용으로만 돼있는 현행 국민투표용지서식을 보완, 헌법개정안에 대한 투표용지로도 사용할수있게 했다。

현행 국민투표용지서식에는 「나는 대통령의 중요정책을 찬성한다」 「나는 대통령의 중요정책을 반대한다」라는 문구의 국가중요정책에 대한 투표용지만 있었는데 이를 「찬성」 「반대」로 바꿔 이제까지 없던 헌법개정안에 대한 투표용지로도 사용할수 있게한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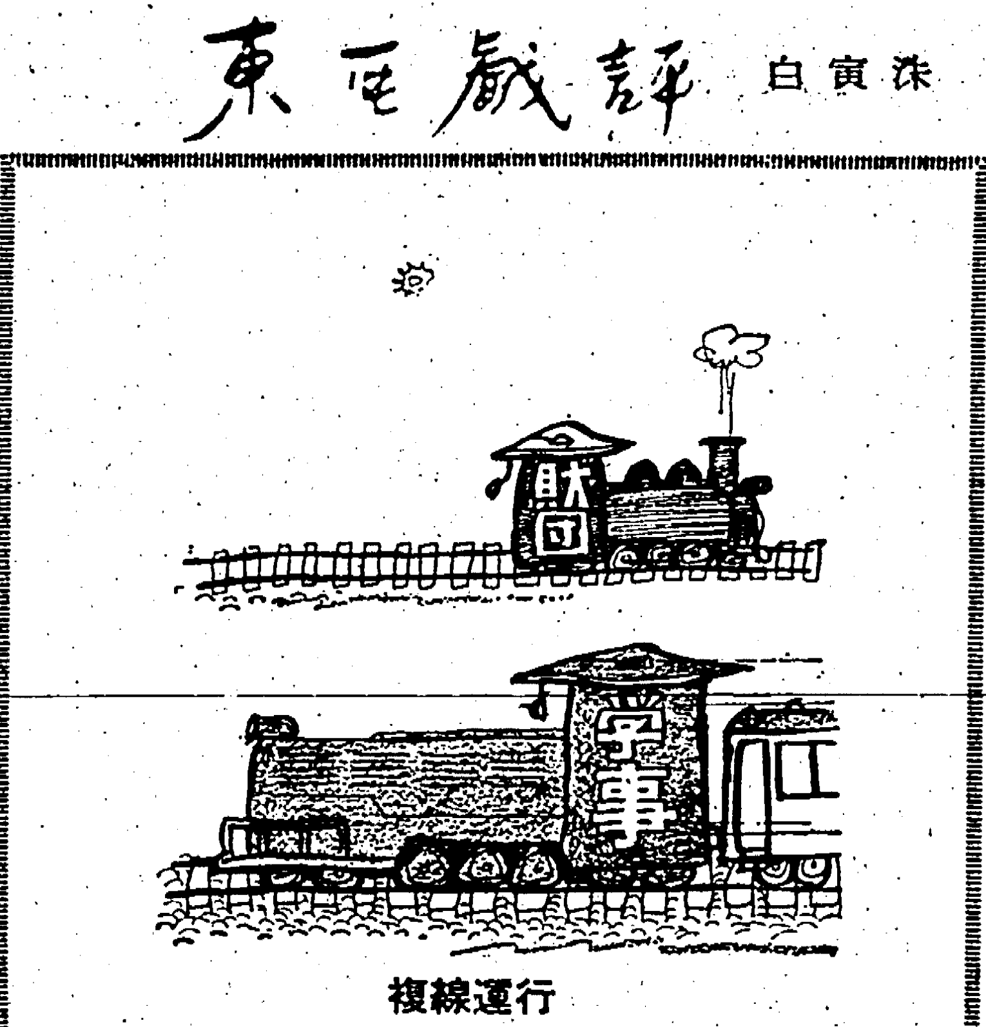
오늘의 小史 20일

▲閔妃, 日人들에 피살(1895) ▲蘇聯, 元山에 상륙(1945) ▲蘇聯, 수소폭탄실험성공(1953) ▲南北赤十字연락관, 분단26년만에 첫대면, 信任狀교환(1971)

19일

지명	기온C	뉴스
東京	22~29	항공자위대機 미사일 무장
뉴요크	21~29	波정부, 罷業진정 노력
런던	14~26	波정부, 노동자요구 거부
파리	14~25	波파업계속

東亞戲評 白寅洙



複線運行

횡설수설

노동자의 天國이라고 떠벌리는 공산국에서 파업이 근 두달째 계속되고있다。「폴란드」공산정권은 전체국가예산의 20%나 점유하는 식료품 보조비를 절감하기위해 지난 7월1일을 기해 肉類가격을 20~40%나 한꺼번에 인상했다。여기에 불만을 품은 일부 노동자들이 임금인상을 조건으로 파업에 들어갔다。예상외로 많은 지지를 얻어 금주에 들어와서는 75개 공장 노동자 10만여명이 파업에 동조, 「기에레크」공산당서기장 정권을 위협하기에 이르렀다◆「마르크스」에 따르면 공산국의 노동자들은 西方자본주의국가 근로자보다 잘살아야 한다。자본가들이 가져가는 剩餘價値를 공산국에서는 노동자들에게 분배하기 때문이라고했다。공장에서 생산되는 상품의 이윤은 자본가가 흡수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노동자들에게 돌아가기 때문이라는 허울좋은 논리다。이 논리에 따라 蘇聯에 공산정권이 들어선지도 63년이 지났고 「폴란드」에 공산정권이 들어선지도 한세대가 지났다◆그러나 노동자의 天國이란 슬로건은 말뿐이다。공산당간부들이 새로운 貴族계급으로 등장한 것이다。이들이 「마르크스」가 지적한 자본주의체제하에서의 剩餘價値를 박탈함으로써 하층 노동자들의 생활은 역시 밑바닥을 헤맬수밖에 없다。「反動」이다 「資本主義走狗」다고 누명을 씌워 수용소로 보내고 유배당할 것을 각오하고 파업에 나서는 「폴란드」 노동자들의 각오를 보면 공산치하의 노동자생활이 얼마나 고달프냐를 실감할수 있다。그런데 다른 공산국에서는 노동파업이 일어나지 못하는 것은 어째서인가。그들에 대한 대우가 좋아서인가◆아니다。공산당 독재체제가 가혹하게 짓누르고 있으므로 감히 파업같은 것은 꿈도 못꾼다。「폴란드」는 인구의 90%에 달하는 카톨릭신도、敎皇「요한 바오로」2세를 배출했고 北美와 西歐에 나가 살고 있는 1천만이민들의 영향으로 노동자들이 파업도를 생각할 여유가 있는 나라다。그러므로 기타 공산국에도 「폴란드」정도로 독재체제에 허술한 점이 있다면 노동자파업은 열병처럼 확산될것이 분명하다。그 확산을 틀어막기 위해서도 「폴란드」공산정권은 뭔가 보여줄것 같다。그래서 이번 파업도 「폴란드의 여름」으로 비극적 종말을 볼것같아 불안하다。

政治人등17명 非理搜査발표

刑事處罰留保

議員職등辭退…不正財産헌납

戒嚴司

계엄사수사당국은 19일 전내무부장관 具滋春 金玄玉, 전건설부장관 高在一씨와 具泰會 金龍泰 吉典植 申洞植 張榮淳 玄梧鳳 鄭海水 宋元英 高興門 金守漢 朴永祿 朴海充 崔炯佑 金東英씨등 여야정치인 17명에대한 수사를 일단락 짓고 그동안의 수사결과를 발표했다。계엄사 당국은 『국보위 방침에 따라 국회의원직을 포함한 일체의 공직사퇴의사표명사실을 국민앞에 공표함으로써 새시대가 요구하는 정치풍토 개선과 국가기강확립을 위한 계기로 삼고자 수사전모를 발표한다』고 밝혔다。〈3면에 발표전문〉

企業人에 選擧資金·謝禮費등 받아

郡守·署長·農協組合長등 人事請託

非理類型

수사당국에 따르면, 지난 7월18일 연행된후 조사를 받아온 이들 17명이 그동안 권좌나 정치영향력등을 이용해서 이권 청탁등 이권개입을 통해 받은 금품, 공금유용, 정치활동비 협조비 명목으로 부정하게 받은 금품이 조사된 것만도 도합 70여억원(현화폐가환산)에 이른다는 것이다。

계엄사당국은 지난 6월18일 권력형부정축재자들에 대한 조사결과를 발표하면서 前非를 뉘우치고 새국가건설에 부응할 기회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반성의 기미를 전혀 보이지 않아 권력형부정축재자처리 및 고급공무원숙정과같은 차원에서 이들을 연행조사한것이라고 수사당국은 밝히고 이들의 행위가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기부금품모집금지법 외환관리법등에 명백히 저촉되는 것이지만 본인들이 부정재산을 국가에 자진헌납하고 일체의 공직에서 물러날것을 명백히한 점등을 참작, 형사처벌을 유보하고 일정한 기준에 따라 부정재산을 환수하는 선에서 수사를 마무리 지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계엄사 수사당국이 밝힌 이들의 비리및 부패행위유형을 보면 ▲비정상적인 정치자금모금, 기업경영에 관련된 이권개입, 협조비 사례비 세찬비 해외여행비 명목의 의례적범주를 벗어나는 금품수수, 국정감사나 대정부질의때 공무원의 秕政이나 기업체의 차관도입등에관한 약점을 들추어낸후 무마조건으로받는 정치성금품수수등의 비위행위▲출신선거구의 정치기반을 다지기 위한 인사청탁및 압력, 친인척의 공무원 기업체취직 강요와 심복부하를 轉職때 대동하고 다니는등의 인사부조리, 인 허가를 둘러싼 행정관청에 대한 압력으로 행정질서를 문란시키는 행위, 특정 개인에게 특혜를 주기위해 법시행령을 제정토록하는등의 구조적 정치비리, 출신지역 시책사업을 빙자한 압력행사로 국가재정의 낭비를 초래케한 행위, 직책이나 신분을 재산보존내지 증식 명성유지수단으로 악용한 호사생활등 기강 문란 부패 행위 ▲부당하게 수수한 재원으로 부동산매입, 사채부자들하는등의 치부 ▲형성된 재산의 비정구좌 예치 ▲호화주택등에 살면서 월 수백만원의 생활비를 쓰는 호사생활 축첩 이중생활을 하는등의 부도덕한 사생활 연소한 미혼여자등과 내연의 관계를 유지하는등의 타락행위 ▲해외에서의 국내정치문제비방과 사대주의적 언동, 불순인사에게 정치자금을 제공 지원하는등 분별없는 해바라기성 정치행태동 국가관이나 사명감을 저버린 행태동이다。

조사된 이들의 축재규모는 金龍泰씨 혐의 1백50여억원, 鄭海水씨 77여억원, 具泰會씨 21여억원, 高興門씨 20여억원, 朴永祿씨 19여억원을 비롯, 崔炯佑씨 1억원미만으로 드러났다。

議員辭退書제출

所屬黨脫黨屆도

부패행위와 국가기강문란등을 이유로 지난달18일 계엄사령부 수사당국에 연행돼 조사를 받고있는 共和黨의 吉典植 具泰會 金龍泰 申洞植 張榮淳 玄梧鳳의원과 新民黨의 鄭海水 高興門 朴海充 朴永祿 金守漢 崔炯佑 金東英 宋元英의원등 14명의 의원이 20일 의원직사직서를 국회에 냈다。

이들은 또 각 소속정당에 탈당계를 제출했다。

이들 의원들의 사직서제출로 「5·17」이후 金大中사건과 관련됐거나 권력형부정축재등 혐의로 수사당국에 연행 조사받은ㄱ의원직사직서를 제출한 의원수는 모두 24명(10명은 처리)이 됐다。

7年單任 間選制검토

"金大中 공정하게 公開裁判중"

全斗煥위원장、日 春日의원에 밝혀

【東京=洪仁根특파원】全斗煥국보위상임위원장은 19일 앞으로의 정치일정에 대해 崔圭夏前대통령이 국민에게 약속한대로 추진하겠지만 될수 있는대로 기간을 단축, 개헌 국민투표도 가능하면 앞당길수있다고 말한것으로 日本에서 보도됐다。

日本의 주요신문들이 20일 서울발 기사로 보도한 바에 따르면 全위원장은 이날 서울을 방문중인 韓日의원연맹회장대리인 「카스가 잇코」(春日一幸·民社黨前위원장)씨와 의견을 교환하는 자리에서 이같이 말하고 대통령선거방법은 간접선거로하되 선거인단을 구성하여 대통령을 선출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全위원장은 이어 대통령선거는 개정된 헌법에 따라 실시될것이며 그임기는 7년으로하여 재선을 인정하지 않도록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全위원장은 또 金大中재판에 대해 『이재판은 누구도 최종판결을 예견할수 없다』고 말하고 『공정한 재판이 공개로 열리고 있는 점에 주목해야 할것』이라고 말했다。

"全斗煥장군支持"

映畵人淨化대회

영화인 정화결의대회가 19일 오후2시 한국영화인협회와 한국영화제작자협회 공동주최로 서울 세종문화회관 별관에서 열렸다。

1천2백여명의 제작자 감독 배우등이 모인 이자리에서 申榮均영화인협회 이사장은 개회사를 통해 『우리 영화인들은 全斗煥장군을 전폭적으로 지지해 새 역사의 새출발을 다짐하자』고 말했다。

이어서 李光杓문공장관(金恩昊차관 대독)은 격려사에서 『오늘 이자리는 새로운 국가발전과 새로운 역사창조의 새로운 역군이 되기위해서 모인 자리』라고 강조하면서 『앞으로 우리 영화인들은 퇴폐적이고 저속하며 반사회적인 영화를 배격함으로써 국민계도에 앞장서야할것』이라고 당부했다。

이어 이들은 『새로운 역사를 확립하기 위하여 우리 전체 영화인은 스스로 주변의 부조리를 완전히 뿌리뽑는 정화운동에 앞장서 새로운 영화풍토를 건설할 것을 다짐한다』는등 4개항의 결의문을 채택, 尹一峰 兪知仁 洞明中 李仙玉등이 나서 낭독했다。

영화인들도 정화결의에 나섰다。

忠南北지역 代議員들도

全斗煥장군 大統領추대

安保보고회

【大田】忠南北지역 統一主體國民會議대의원 3백58명은 20일 大田중앙호텔에서 열린 統一安保보고회에서 全斗煥국보위상임위원장을 제11대 대통령후보로 추대키로 만장일치로 결의했다。

20일오전9시 大田중앙관광호텔에서 열린 안보보고회에서 朴忠勳대통령권한대행은 李春基統代운영위원장이 대신읽은 치사를 통해 『투철한 영도력의 공백이 있어서는 안되기때문에 새로운 영도자를 선출하여 그분을중심으로새질서확립에박차를가해야 한다』고말했다。

勞動廳次長 張永喆씨

정부는 20일 노동청차장에 張永喆전국무총리의전비서관을 발령하고 鄭濟熙노동청차장을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에 임명발령했다。

無影塔

私學、財團 學校經營分離。私學은 「假牙」는 도려내고 名實共히 「象牙의 塔」으로。

★

오징어 豊漁。氣象異變에 農村은 울고 漁村에선 웃고。

★

定期診斷등 골자의 老人福祉法草案 마련。새삼 뉘우쳐지는 高麗朝의 古事。

★

旅券發給期間 단축。世界 이웃집 드나들듯 할때 멀지 않을듯。

8月 30日까지 申請分 今年度 10月 入住可
2층증축 坪當 35万원
건설부주최: 건축 우수자재전시회출품전시중·포장센타
S.P.C住宅의 性能(日本政府公認試驗所認定)
① 輕量性: Conc.의 4~5분의 1
② 斷熱性: Conc.의 16倍
③ 耐火性合格: 1~2時間
④ 遮音性優秀: 33dB/500Hz
◎ 社員募集(外勤·內勤)
株式會社 東邦工業住宅
☎267-5931

聲明書

急變하는 國際情勢의 거센 挑戰과 10·26事態 以後의 國家的 試鍊과 危難을 슬기롭게 克服한 이제 80年代의 새 社會建設을 向해 一路邁進해야 할 重要한 時點에 處하여 우리 25萬 教育者는 다음과 같이 聲明한다。

一、지난 10·26事態 以後 北傀의 南侵危脅이 高潮되는 國家的 危機에 一部 舊政治人들의 政權野慾이 빚어낸 無責任한 衝動과 使嗾로 말미암아 舍北炭鑛流血事態를 비롯하여 極烈했던 一連의 勞使紛糾와 學園騷擾事態가 發生하였고 드디어는 悲劇的인 光州事態로 까지 번져 國家安危를 憂慮한 國民들은 모두가 이를 慨嘆해 왔던 것이다。

이와같은 危急事態에 直面하여 政府는 5月17日 全國非常戒嚴擴大措置를 取하는 한편 신속한 社會公共安寧秩序의 確立을 期하기 위하여 5月31日 國家保衛非常對策委員會를 設置하여 危機에 처한 國家를 保衛하고 不正、不條理、非違等 積弊된 社會惡 一掃에 一大 勇斷을 내려 建國以來 初有의 社會改革을 斷行함으로써 社會淨化에 全力을 傾注해 왔다。이는 곧 80年代의 밝은 새社會의 基盤을 鞏固히 하는 快事로서 온國民의 全幅的인 信頼와 支持를 받고 있으며 自由友邦까지도 정성어린 支持와 聲援을 보낸바 있다。

一、8月16日 崔圭夏大統領의 下野聲明은 우리들로 하여금 새로운 指導者를 中心으로 힘찬 새出發을 期約할 一大 轉機를 마련해 준 勇斷이 아닐 수 없다。下野聲明에서 밝힌바와 같이 政治日程을 앞당길 수 있고 平和的 政權交替의 傳統과 責任政治의 具現으로 不信風潮를 없애고 國民 모두가 心機一轉하여 和合과 團結을 다짐으로써 時代的 要請에 따른 安定과 道義와 繁榮의 밝고 새로운 社會를 建設하는 歷史的 轉機를 마련하기 위하여 愛國衷情과 大局的 見地에서 下野의 決心을 내렸던 英斷에 대하여 깊은 敬意를 表하는 바이다。

一、새時代 새歷史를 創造하는 國家發展의 關鍵이 教育에 달려 있음을 確信하는 우리 25萬 教育者는 『國家發展에 있어 教育의 役割이 매우 중요하며 특히 우리나라와 같은 與件하에서 教育은 國家發展의 原動力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全斗煥將軍의 確固한 教育觀에 全幅的인 歡迎을 보내면서 全人教育을 바탕으로 한 知識의 涵養에 教育의 重點을 두고자 國保委가 斷行한 『教育正常化와 過熱課外解消』 措置는 國家百年大計를 위한 教育政策의 一大轉換임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더우기 教育正常化를 위한 長期對策으로 提示한 教育財源의 確保및 教員의 經濟的·社會的 地位向上方案은 教育界의 念願이 그대로 反映된 劃期的인 措置로 높이 評價하고자 한다。우리는 국가와 민족이 처한 현실을 직시하고 이러한 措置에 능동적으로 호응하여 國民教育진흥과 教權確立에 先導的 役割을 다하고 새로운 學園의 勉學雰圍氣造成과 教職의 專門性伸張에 헌신할 것을 다짐한다。

一、지금 우리의 當面課題인 民主政治의 土着化、민주 복지국가의 건설、정의사회의 구현을 追求하기 위하여서는 强力한 實踐力과 領導力으로 國民的 團合을 圖謀할 수 있는 새로운 指導者가 要求되고 있다。이와같은 時代的 要請과 國民的 輿望에 따라 우리 25萬 教育者는 새歷史의 使命을 훌륭히 遂行해 나갈수 있는 全斗煥將軍을 우리의 새로운 指導者로 推戴할 것을 全幅的으로 支持하면서 教育者的 使命感으로 새時代 새歷史 創造에 앞장 설 것을 聲明하는 바이다。

1980年8月20日

大韓教育聯合會

會長 鄭範錫